

비구니 노후복지시설 최초 건립

논산군 양촌면 4천6백여평 대지에 아파트형 사찰...방 108개 입주신청 완료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수행정진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노후복지시설이 교계 최초로 건립되고 있다.

충남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 절골로 불리워지고 있는 한적한 마을 4천6백여평의 대지에 세워지고 있는 봉선사(가칭)는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복지시설이다.

8정도 모형을 3층과 4층 규모의 아파트형 6개동으로 공사중인 봉선사에는 총1백8개의 개인방과 대웅전, 명부전, 선방, 지대방, 식당, 요사채 등이 현대적으로 두루 갖추어진다.

아늑한 산 기슭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봉선사는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된 상태라고 주위에서 귀띔한다. 이같은 대형 봉사는 지경스님(강경 봉선사 주지)을 비롯 1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노후복지를 위해 노력을 모아 이뤄졌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신청이 완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 교계에는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수행정진할 수 있는 시설이 전각종들 맞닿을 빼고 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해 (주)현대대서치연구소에서 전국 비구니스님 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8%의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은 '노스님들을 위한 양노시설이 마련되면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해 노후의 거처, 건강, 경제력 등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대책이 시급한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계에는 전각종이 각 심인당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다가 장년퇴임한 65세에서 70세 이상의 스승을 위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태고종은 스님들의 의료혜택을 위한 공제회를 운영중이고 천태종은 종단차원의 연금을 들어 노후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내년초 스님들의 요양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법령에 '승려노후



◇ 4천6백여평 대지에 필경도 모형 6개동으로 세워지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복지관.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됐다.

복지관 설치령을 마련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승=김종근기자)

은 토론을 거쳐 다섯 항의 합의안을 마련, 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 불교는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를 위해 양국 승려 한명씩을 교류한다. △양국 불교 수행방법의 상호교류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으로도 시행한다. △승려나 재가불자의 교류를 실시하며 양국 사찰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일체의 체류비를 제공한다. △양국 교인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보호요 상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2차 대회는 96년 10월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양국 사무처에서 기하 조정한다.

(권원기사 6면)

을 교계 전화상담관련기관과의 연합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합교육은 자비의 진화와 진리의 진화(구통사), 범우상담실(능인선원), 봉은상담실(봉은사) 등 교계 4개 전화상담기관이 지난 23일 상담기초교육을 연합 실시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오는 4월 3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화상담 연합교육은 앞으로 각 상담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과 연대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경건주간 '이웃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수계식·무료진료 등

3월8일 부처님 출가절과 15일 열반절을 맞아 경건주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조계사 법당에서 경건주간 입재식으로 경건주간 행사를 시작 오는 1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총무원장 스님을 계사로 총무원, 외국인 노동자, 정신대 할머니, 조계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갖는다.

또한 14일 오전 11시에는 포교원 주관으로 신형 혁신 대정진 법회가 개최된다.

경건주간 동안에는 전국 각 사찰에서 8일부터 15일까지 철야정진법회가 봉행되며 '개발음의 사회화' 성공모금도 계속된다. 각 지역별로 양로원 고아원 위문 및 무료진료등 부처님의 출가, 열반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입장료수입 1%적립

조계종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지난달 20일 직지사에서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입장료수입의 1%를 적립키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스님들은 이날 회의에서 입장료수입의 1%를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관람료 조정을 현안문제는 관람료사찰 현안 개선대책위에 위임키로 했다.

적립금은 관람료사찰의 현안 개선 및 정보관리에 쓰인다. 관람료 징수사찰은 59곳이며, 이 가운데 조계종소속은 57곳이다.

부산불교신협 정기총회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사장 사상호)은 지난달 25일 부산 법일동 소재 신협법회실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은 사상호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금년 자산목표율 1백10억원으로 설정, 목표달성을 결의했다.

한편 부산불교신협은 공로 조합원 10명에게 현대불교신문 1년 구독권을 증정했다.

부산해양병원 개원

지난해 불교재단 후원원에 의해 인수된 부산 해양병원이 기존의 2층병동을 증개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30여 병상을 갖춘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모습을 갖추어 지난달 18일 개원식을 가졌다.

해양병원은 이날 개원식과 함께 제1회 해양병원 장학회를 설립, 장학금 1천5백만원을 불우청소년 및 선원자녀 30명에게 전달했다.

유해환경 감시단 발족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성일스님)가 불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위탁받아 25일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남북 불교지도자법회 北에 제의

평불협 예비 실무접촉 이달 중 공식 요청

평불협(회장 송원주)은 지난 2일 오전 10시 평불협 사무실에서 가진 교계내외기자회견에서 '제2차 남북한 해외 불교지도자 합동 통일기원 법회 및 간담회' 개최(미국·A 관음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예비실무접촉을 3월중에 갖자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공식제의를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은 "2차대회는 오는 4월 개최를 원칙으로 조국통일 기원 합동법회를 비롯해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불교도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와 남북친선도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있으며 북측의 답신이 오는대로 입장을 곧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대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접촉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조병연 대표와 95년 4월경에 2차 대회를

열기로 합의한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가 성사될 경우 남한 불교대표자로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타스님, 윤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도안스님(미국·A 관음사 주지)과 미국, 일본의 불교지도자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평불협은 지난 91년 10월 미국 L·A에서 제1차 해외 남북 불교지도자 합동법회를 가진바 있으며 종교계에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인 교류 합의 제1차 한·태불교대회

한·태불교협회(회장 법장스님·수석사 주지)와 태·한불교협회(회장 프라담마야보디스님)는 지난달 16일 태국 방콕 불다문톤 국제센터에서 제1차 한태국제불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양측 회장단

교계전화상담 4곳연합 9기 카운슬러대학열어

24시간 전문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오는 4월 제9기 카운슬러 대학

불교 전문채방
여시아문 737-0695

"한알의 씨앗을 뿌려 불교를 위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민생활중 일시 귀국해 자기 육신의 한부분을 타인에게 보시하여 생명을 나누고

분류사찰 재산처분 반대 태고종 보현도량 정기총회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재흥스님)은 지난 1일 능인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태고·조계

간의 분류해결을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분류사찰 재산처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신장기증 재미동포 정근수행 보살

한 생명 살린다는 환희심에 "선뜻"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생명공양행동을 몸소 실천한 정근수행 보살의 말이다.

오래전부터 누군가 꼭 필요 한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살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얼마전인 지난해 8월 생명공양과 처음으로 인

마음을 결했다는 정보살은 열 마진 다리부상으로 잠시 쉬는 기간을 이용, 자비를 들여 한 국에 와 곧바로 생명공양실천 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정보살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격인 남편의 신장기증 자필 통의서까지 미국서 받아와 신

장기증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생명공양실천본부에 표명했고 이어 한 젊은이에게 새 삶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오로지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환희심으로 모든 힘든 절차들을 기쁨으로 극복, 지난 1월 24일부터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정보살은 기초검사, 혈액반

응고검사, 정밀조직검사등 20여가지가 넘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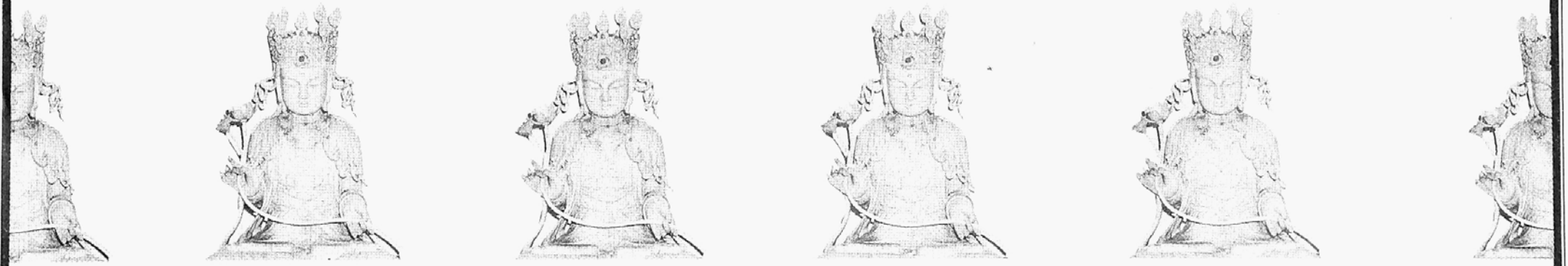
지난 3일 신장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회복중에 있는 정보살은 "모든 조치가 있어 신장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생의 큰 인연때문 아닐까요"라면서 자신의 신장 기증으로 건강을 되찾은 젊은이들을 위해 봉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기.

이제 며칠후면 가족들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정보살은 "콜로라도 용화사에서 더욱 열심히 정진해 참람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며 푸른빛 환자를 입고 환하게 미소지었다.

(이은자 기자)

위대한 버림 참나를 찾는 길 불교도 경건주간 3월 8일~15일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전시관 개원식 : 4월 1일(土) 15:00 ~ 18:00



大佛光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꼐 담아가는 선남자여.

바람에 채색된 불화에서 민음의 새색이 돌아오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조롭게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분의 가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기록하고, 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량입니다.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치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들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려해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할 장엄불구를 조성해 하러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투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길용 합장